# 복지 사각 이웃 발굴 '우리동네 슈퍼맨' 떴다

## 검침원·집배원 등 26명 구성 광주 동구 지원 1동 출범식 북구 집배원 '복지 수호천사'로

"주변 어려운 이웃은 우리가 찾고 도와야죠."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에 처한 이 웃을 찾기 위해 주민들이 나서고 있다. 마을 공동체 가 소외 계층 등 이웃의 어려움을 찾고 해결하기 위 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동구 지원1동은 22일 동주민센터에서 복 지사각지대발굴단 '우리동네 슈퍼맨' 출범식을 가 졌다

'우리동네 슈퍼맨'은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전기·수도 검침원, 집배원, 우유 배달원, 통장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동네 구석구석을 돌면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직접알리거나 지원1동 10여곳에 설치된 희망우체통에 사연을 적어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1동과 동 주민복지공동체는 동네 슈퍼맨들이 제보한 사연을 바탕으로 주거, 생계, 의료비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신청해 주거나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슈퍼맨'은 발굴한 어려운 이웃에게 위 기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 께 진행한다.

이종태 주민복지공동체위원장은 "도움 받는 방법을 몰라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게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학운동주민복지공동체(위원장 강기술)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저소득층 자녀 22명에게 학원 비 340만원을 지원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업의지를 북돋워 지역인재를 육성하 기 위해서다.

학원비 340만원은 기관이나 지자체 지원없이 전 액 학운동 주민 61명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이다. 주민들은 매달 모금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겨울방학에도 학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구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140여명이 '복지 수호 천사'로 변신, 위기 가정 발굴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북구는 올해 초 북광주우체국과 '공감복지 빨강 우체통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 발굴 을 위해 매일 같은 동네를 돌며 지역 사정에 밝은 집 배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북구는 집배원들의 도움 으로 북구 임동 한 가정에 난방공사와 공부방 공사 를 지원해주는 등 지난 7월까지 모두 20여건의 사 례를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무기 신기해요"

22일 어린이들이 광주시청 앞 광장에 전시된 무기들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는 '2016년 을지연습(22~25일)'이 시작된이날 하루 시민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육군 31사단과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의 도움을 받아 군 장비 160여점을 전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영화관·문화시설 등 50곳 소방특별조사

#### 전남도소방본부 이달말까지

전남도소방본부는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화재 예방과 도민 생활안전을 위해 영화 상영관 등 문화·체험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

흡음재, 커튼 등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 물 구조 변경 ▲우발상황 대비 층별 피난시설 적합 여부 ▲자위소방대 구성 등 소방계획의 적절성 등

조사 결과 불량사항으로 적발될 경우 시정보완 조치 등 강력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재 발 생 초기 대응 요령 등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긴급 상황 발생 시 현 장 관리자들이 원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형철 전남도소방본부장은 "막바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냉방이 설치된 문화·체험시설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설 이용객들은 긴급상황에 대비, 피난로 확인 등 시설 이용에 앞서 주의가 필요하다"고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폭염에…광주·전남 18개교 단축수업

고교 2곳·중학교 16곳…당분간 탄력 수업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면서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교 18곳이 단축수업을 했다.

22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지역 18곳의 중·고등학교에서 폭염으로 단축 수업을 했다. 광주는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10곳에서 수업시간을 단축했다.

광주 숭의고와 전자공고는 각각 지난 17일·19일 부터 이날까지 매 교시 수업시간을 50분에서 40분 으로 단축했다.

지산중·일신중·조대부중·숭일중·금호중앙중· 수완중·운남중·무진중·동명중·유덕중 등 10개 중 학교도 매 교시 5~10분 가량 수업시간을 단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중·순천매산중·순천삼산중 등 6개 중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다.

전남지역 고등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폭염으로 개학을 연기한 학교도 없었다. 여수중 등 전남 4개 중학교는 23일에도 수업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된 폭염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학교가 늘고 있다"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중·고교는 지난 4일부터 학사일정에 맞춰 개학을 시작했다. 광주·전남(신안군 흑산면 제외)에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총 19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아로마라이프 배

### 광주교육청 정기 인사 단행

광주시교육청은 유·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교사 187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명단 22면〉

교육연수원장에는 고향숙 정책기획관이, 학생교 육원장에는 나승렬 상무고 교장이 임명됐다. 정책기획관에는 김철호 교육연수원 운영부장이, 교원인사과장은 정낙주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 지원과장이 임명됐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에 노종식 용봉중 교감이 자리를 옮겼으며 교육연수원 운영부장은 강 영 선운초 교감이 맡게 됐다.

감이 맡게 됐나. /김지을기자 dok2000@kwangiu.co.kr



